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마련

익산시, 명절 물가·수급 안정 위한 물가대책반 운영... 팔봉공설묘지 셔틀버스 운영 등

익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누적된 물가 부담 대응과 연휴기간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비상대책반을 10개 반으로 구성하여, 1일 50여명의 공무원들이 상형근무에 돌입한다.

총괄반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대책반 △재난해태대책반 △교통종합대책반 △의약대책반 △생태환경대책반 △도로대책반 △의료진료대책반 △상하수도대책반 등으로 구성되어 대책반별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먼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등 고물가에 대비하여 물가 및 수급 안정 관리에 총력을 펼친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성수품 가격동향 모니터링, 불공정 상행위 점검 등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킬 예정이다.

이러 물가안정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명절 연휴기간 별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민원에 대비한다.

또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성수품 품 할인행사,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속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위문, 아동급식 부식배달 등 나눔문화 확산에 힘쓴다.

특히 교통종합대책반은 추석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설운동장 입구 ~ 공설묘지 입구 등 교통통제 및 질서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공설운동장에서 공설묘지 입구까지 셔틀버스 6대가 무료 운행되고,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골택시 4대가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정수원 입구까지 무료로 운행한다. /익산=이재준 기자

기후생태도시·익산형 RE100 등 제시

시의회 탄소중립도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익산시의회 탄소중립도시연구회(이하 연구회)가 25일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익산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익산시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난 6월 착수하여 4개월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오임선 대표위원을 비롯한 연구회 의원들과 익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학회(학회장 최정석)에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연구회는 그간 연구활동을 통해 익산시의 현재 추진되거나 예정인 탄소중립 관련 사업들을 확인해 보고 익산시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연구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용역에서는 익산시 여건을 고려한 신규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학회의 최정석 학회장은 "탄소중립정책에 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발굴한다는 것은 전국에서도 아주 이례적이다"

라며 익산시의회의 적극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익산시 특성을 고려한 익산시 기후생태도시를 비롯하여 익산형 RE100, 푸트테크 로봇사업 등 한국환경정책학회의 제안사업이 향후 익산시 탄소중립정책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임선 연구회 대표위원은 "익산시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며 "우리 연구회는 익산시탄소중립기본계획에 앞서 익산시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반영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연구활동이며, 본 연구용역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회 탄소중립도시연구회'는 오임선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최재현,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조남석 의원 8명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연구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는 2024년 수립예정인 '익산시 탄소중립기본계획'과 향후 탄소중립정책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준 기자

익산시, 산·학·관 일자리정보 통합체계 '공유'

9개 기관과 일자리정보 통합체계 구축 협약 체결... 기업·구직자들에 윈윈 정보 제공

익산시가 산·학·관과 손잡고 산재해 있는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 및 공동 활용하는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지역 구직자 및 구인기업들에게 폭넓은 일자리정보 제공을 위해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9개 기업·지역대학·직업훈련 전문기관과 일자리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익산시 산하 일자리센터 4개 기관(고용안정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식품가업지원 유관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과 전북식품산업일자리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협약기관들은 일자리 정보제공 및



정보교류, 일자리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공동 참여,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항으로 △익산시는 예산 지원 등 일자리정보 통합체계 운영 총괄을 담당하고, △지역대학은 각 기관의 구인구직 데이터 및 일자리 수요 정보 제공, 기업 애로사항 파악 등 각 협약기관의 일자리정보 통합을 통한 관내 취업률 제고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팔을 △협약기관은 각 기관의 구인구직 데이터 및 일자리 수요 정보 제공, 기업 애로사항 파악 등 각 협약기관의 일자리정보 통합을 통한 관내 취업률 제고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착한소비 이끄는 '고향길은 꽃길장터'

익산역에서 추석선물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전... 홍보·판로 기여

익산시가 추석을 맞아 일일 2만여 익산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착한소비'를 이끄는 '고향길은 꽃길장터'를 개최한다.

시는 한국철도공사(전북본부)·코레일유통(호남본부)과 협업체 오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14일간 익산역에서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판매전을 진행한다.

시는 2023년 상반기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유통과 익산역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에 대한 계획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추석을 맞이해 사회적경제 판매전을 익산역 맞이방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고향길은 꽃길장터'에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8개소 제품 20개, 청년창업기업 3개소 제품 11개가 전시·판매되며, 판매장 운영은 품격사회협

동조합·바이비상(대표 박진영)에서 위탁 운영한다.

장터에서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육포와 제로웨이스트 제품, 전통장류세트, 발달장애인 직접 만든 도자기집, 익산의 명소를 모티브로 만든 무드등 등이 전시·판매된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에서는 국화차, 애완견 간식, 익산 지역명소 굿즈 등이 마련되었으며 제품홍보 이벤트와 문화예술공연도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익산역에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청년창업기업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명절을 맞이하여 선보이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라며 기업들과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의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군산시, '배달의 명수' 한가위 맞이 고객감사 이벤트 진행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시민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가위맞이 고객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가위 맞이 이벤트'는 오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간 배달의명수 앱을 통해 주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1회 주문 시 '배명의 마블'이라는 주사위 게임 참여 응모권 1장을 제공한다. 게임 결과에 따라 총 850명에게 3,000원부터 1만원까지의

할인쿠폰을 지급. 할인쿠폰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10월 한달 간(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문 최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감사 이벤트를 펼친다. 이 이벤트는 이용횟수에 따라 1등 1명, 2등 9명, 3등 10명 등 주문 상위 고객 총 19명을 선정해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 제11회 시간여행축제 행사장 '배달의 명수' 홍보 부스에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배달의 명수 홍보

부스에서 진행되는 SNS이벤트를 참여하면 배달의 명수 부스에 준비된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스타트큐러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배달의 명수 신규 입점 가맹점 200개소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꾸러미는 앞치마, 고무장갑 등으로 첫 영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속있게 구성됐다. /군산=김갑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3 청소년 K-POP 축제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2023 청소년 K-POP 축제'가 오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군산시의 대표 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정의봉)에서 주관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을 마련했다.

K-POP 전공자 등을 섭외해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무대로 각광 받고 있다.

축제는 보컬, 댄스, 밴드, 비보잉, 합창, 국악 현대무용 등 공연 형태의 전 범위 장르로 참가 가능해 전년보다 지원 분야가 확대됐다. /군산=김갑곤 기자

군산시, 영농폐기물 일제수거 실시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리영심)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깨끗한 농촌환경 지킴이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로 18번째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사업 실시로 방치된 영농폐기물 자원화 및 친환경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수거 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하우스나 토양 말칭에 사용된 비닐, 토양 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용 폐비닐 등이며 수거 폐기물은 전량 전북환경본부에 인계해 자원화 할 예정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170여톤을 수거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지속 증가하고 있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영농폐기물 자원화 수의금을 12개 읍면동 주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지역사랑 나눔 기부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군산=김갑곤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